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 11 월호



감사를 잊지 말시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모든 것을 견디고 포용할 수 있는 만능의 방패요 무기이다. 신앙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주위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는 감사란 어렵고 불가능하다. 객관적 상황이 달라져야만 감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메마른 사막같은 현실 속에서 감사가 홍수처럼 물려오는 변화가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주관(主觀, 自我)의 변화다.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변화하니 객관(客觀, 対象)이 달라보이고, 원망 불평하던 나 자신이 변화되니 모든 조건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어진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만족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 진정한 복음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 복음은 그 은혜를 입는 자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온 천하를 얻은 사람처럼 만족하며 사는 놀라운 인격이 되게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인격의 모습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으로 묘사하고 있다. 바울 자신은 옥중에서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이같은 삶의 신비를 몸소 체험적으로 보여주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격동의 세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총현의 권속들에게 세 가지 감사를 잊지 말자고 격려를 드린다.

첫째, 개인적인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그것이 비록 쓰디쓴 고통일지라도 감사의 기본 중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자.

둘째, 교회적인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교회가 큰 사명의 집진 것을 감사해야 한다. 비록 감당키는 어렵지만 · 천국일꾼양성 · 북한선교 · 민족복음화 · 세계선교 · 성전건축 5대 목표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고 이목을 끌 업적을 남기기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무수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이 나라와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적 · 민족적인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자유와 발전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갖가지 시련을 겪고 있다. 걱정스럽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만 본 결과이다.

역경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하시며, 영원한 반석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며 감사해야 한다.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 모든날 마지막 절기에 복음으로 우리나라를 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에 감사하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리라!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총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1권 제10호 통권 115호

1983년 11월호 차례

월간 총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 11월호

○권두언/감사를 잊지 맙시다.....	주 간 · 2
○이달의 말씀/나의 나 된 것은.....	당회장 · 4
□감사절 특집	
◎성도의 감사생활과 3대절기.....	정상우 · 6
◎감사를 아는 삶.....	이세열 · 9
□선교특집/제2회 선교세미나.....	편집실 · 12
□새해 교회조직개편의 의의와 그 내용.....	최석주 · 15
◎이사야 강해⑬/사명받은 이사야.....	김창인 · 19
◎찬송가 감상/묘한 세상 주시고.....	김창근 · 21
○칼럼/버마사건과 크리스찬의 각성.....	손경수 · 22
○나의 감사/진흙같은 날 불드사.....	유미화 · 23
○학부형일기/꽃밤 이야기.....	이복희 · 24
* * * * *	
○선교사 · 선교지소식.....	25
○교회소식.....	27
○11월의 행사.....	30
○쟁쟁관.....	26
○이달의 교우동정.....	29
○편집후기.....	30



□표지해설

지난 10월 28일, '83년
제4차 성례식 중 세례
식 때에 세례받으는 교
우들이 서약을 하는 장
면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11절

나의 나 된 것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15:10)

사람의 인격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 지식, 권세, 기술, 인물도 좋으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 신세입은 어른의 혜택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신자,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갚으려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야 있든 없든, 얼굴이야 예쁘든 못났든, 사람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스승의 은혜를 모르고, 수고한 사람의 수고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껍데기는 사람이요 간판은 신자일지라도 자격이 없고 값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열일곱살에 억울하게 팔려서 남의 종살이를 십년이나 하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삼년이나 감옥에서 고생하던 천덕꾸러기 요셉이 설혼살이 되어 감옥에서 나오면서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요셉이 잘 나서 된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천대받던 자리에서 건지셔서 대접받는 자리로 옮겨 놓아 주셨습니다.

나이 사십에 남의집 머슴살이로 시작하여 팔십이 되도록 남의 양이나 처야 되는 머슴 생활, 이른 아침부터 보리밥 한 술 얻어먹고 꼬부랑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몰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니며 양을 치던 영감 모세 이 얼마나 천대꾸러기입니까?

이렇게 천대받던 모세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바로를 꺾으시고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복지로 인도하는데 성공하는 지도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꿈도 못 꾸었는데 하나님이 건지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공의 복을 안겨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6·25 전쟁을 당하여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서울에 돌아와 예배당 짓고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우리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

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꿈에도 잊지 맙시다!

2.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 영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악마의 사슬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

(2) 자연만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태양 빛과 열에 대해서 전기회사에서 전기요금을 받듯이 받으신다면 가난뱅이는 해구경도 못하고 해가 있다는 말만 듣다가 죽을 것입니다.

자면서도 마셔야 하는 공기를 병원에서 산소 호흡을 할 때처럼 돈을 받으신다면 부자 몇 사람이나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가난뱅이들은 하수도 구멍에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가스나 조금 얻어 마시고 살겠는데, 우리 하나님 고마우셔서 부자들이 사는 도시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못마셔도 농촌에 사는 가난한 농민들은 고기 실컷 못먹는 대신에 공기라도 깨끗한 것을 많이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오폭배과, 산의 나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은총입니다.

(3) 성령님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의 인생 나그네 길에서 혼자 가다가 길 잃어 버릴까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4) 장래에 천국의 복을 주셨음
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돌보아 주시다
가 세상을 이별하여 죽음 정거
장에 내리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
님이 “이제 오느냐” 하시며 마중
나와 주시며 “이것이 너를 위하여
내가 예비한 네 집이로다” 안내하
여 주실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복을 여
러분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3.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 마음 속에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이 되었으면 부모님이 날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효자가 됩니다. 우리
는 사람에게 신세지고 원수 갚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
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자다가
도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나
오도록 우리 마음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입으로 은혜를 간증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으
로 감사의 말과 감사의 노래가 있
어야겠습니다.

(3) 행실로 감사의 표적이 있어
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
마워요’하는 말이 친절에 올 때는
멀치 새끼 한 마리도 안 가져오고
갈 때는 아버지 장 밑에 숨겼던
것까지 똥팡 들고 간다면 그 감사

는 가짜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세요요...
더 많이 주세요’ 하면서 감사의
표적은 없는 신자라면 모리배의
욕심꾸러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
사는 정성스러운 행실의 표가 있
어야 하겠습니다.



김 창인 목사 (당회장)

(4)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
다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혼자 받
는 것이 아니고 관계 있는 사람에
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식이 칭찬을 받으면 부모님께
칭찬이 돌아가고 남편이 대접을
받으면 아내도 대접을 같이 받습
니다. 인간은 언제나 관계있는 사
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삽니다.

한국사람이 외국에 가서 망신하
면 자기만 망신하고 고생하는 것
이 아니고 나라에 욕을 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만 망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피를 쏟아주

신 예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추잡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법이 무엇입
니까? 조심입니다. 부모님께 욕
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
백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
심하고, 교회에 손해가 가지 아니
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
가지 않도록 말 한 마디를 조심하
는 것이 감사를 바로 하는 것입니
다.

(5)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
다

땅의 복, 하늘의 복을 다 주셨
으니 이 몸, 내게 주신 물질, 내
게 있는 기술과 지식, 권세, 건강
을 ‘아버지의 선한 일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하는 이것이 헌신입
니다.

헌신은 절개를 지킵니다. 「충신
은 불사이군」이라 두 임금을 섬기
지 아니하고 절개를 지켜 충성합
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
니까? 십자가에서 피흘려 날 위
하여 죽어주신 예수님께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중 현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평안할 때에 유혹을 끌고,
환란 날에 절개지킬 수 있도록 준
비합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러므
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과 입과 행실로 감사하면서
조심함으로 하고 몸 바쳐 헌신함
으로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
고 지혜로운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성도의 감사생활과 3대절기



정 상 우 목사 (수석 부목사)

11월은 감사의 달이며, 세계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온 교회가 지키고 있다. 그럼 왜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3대절기(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서 찾아 보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한다.

1. 3대절기란 어떤 절기인가

「너는 매년 삼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출 23:14)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세 차례의 절기를 꼭 지킬 것을 분부한 명령이다.

세 절기란, 1. 유월절, 2. 오순절, 3. 초막절이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분부는 레위기 23장 41절에는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분부하셨다. 「너희는 ...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매우 중요시하셨다는 것이다.

그럼 이 세 절기는 어떠한 절기이며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그처럼 하나님께서 중요시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하셨을까?

첫째로, 이 세 절기에는 신약적인 구속의 귀한 진리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 절기를 살펴보자.

1.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일을 기념하는 절기다(출 12장). 강력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애굽인의 가정과 구별하는 표를 함으로,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월”이란 “넘어간다”는 뜻이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받게 된 것이다.

그럼 이 유월절에서 보여주신 구속의 진리가 무엇일까?

- (1) 구속을 위한 선민의 성별이다.
- (2) 구속을 위한 희생의 피.
- (3)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아가서를 인도하셨다. 아가서는 선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별, 희생의 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 구속의 진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비롯되었다(엡 1:4~5, 롬 9:10~16, 요 15:16, 롬 8:28~30, 행 13:48~49, 롬 9:11~12) 칼빈은 “선택의 교리는 구원의 기초가 된다”고 말했다.

②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다(고전 5:7, 마 26:28, 히 9:14; 10:10~19).

③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피흘려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요일 4:9~10, 요 3:16, 롬 5:8). 그러므로 선택, 희생의 피,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유월절을 통해서 계시하신 구속의 진리이다.

2. 오순절(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은 일을 기념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새 곡식을 먹게 된 일, 그리고 매년 첫 농사의 추수(보리, 밀)를 감사하는 절기다.

그럼 이 오순절에서 보여주신 구속의 진리가 무엇일까?

- (1) 구속받은 성도를 위한 성령강림이다.
- (2) 구속받은 성도를 위한 “교회” 설립이다.
- (3) 구속받은 성도의 선교적인 사명이다.

오순절은 새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지킨 절기로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양의 피, 선택,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지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행 2:1~4). 성령님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의롭게 살 수 있게하는 “생명의 법”이다(롬 8:2).

그리고 이날, 첫 열매를 추수하여 감사하는 절기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구속의 첫 열매가 되는 주님의 몸된 신약교회가 세워졌다.

칼빈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더욱 이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읽게 하셨는데, “룻기”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으로 “룻”은 이방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빛나고 있다(마 1:5). 그런데 성령님이, 이날 강림하심으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의 지상사명이다.

이날 방언을 하계된 것도 선교의 사명을 뜻한다.

3. 초막절(수장절, 추수절, 장막절, 회락절) —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40년간 시내 광야에서 지내던 일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가을추수(무화과, 포도)를 감사하는 절기이다.

그럼 이 초막절에서 보여주신 구속의 진리가 무엇일까.

- (1) 땅 위에 인생이 무엇임을 보여줌으로 천국을 사모하게 한다.
- (2) 세상의 종말이 있음을 보여줌으로 천국을 사모하게 한다.
- (3)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게 한다.

초막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절기를 지킨다.

지난 날, 시내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생수”를 주시면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감사하고, 인생은 광야같은

세상에서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임을 초막안에서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일을 결산해 보며 새해를 맞이할 소망과 설계를 한다.

초막절은 일년의 마지막 추수 때이다 그래서 연종(年終)에 지키는 절기라고 한다(출 23:16하).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는데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은 세상만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헛된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본분임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전도서의 진리가 언제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되다는 것이 증명될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심판이며 성도의 영광스런 구원의 완성이다(계 20:~22:).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말세론적인 구속의 진리가 계시된 절기이다.

이처럼 유월절은 ‘어떻게 선민이 구원을 받게 되느냐’의 구속의 근본진리 “선택” “희생의 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래서 유월절은 한 해의 시작으로 정월달에 지키게 하셨다.

오순절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바로 살 수 있는나의 근본진리: 성령충만, 교회생활, 복음선교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새 땅에 들어간 후에 지키는 절기이다.

초막절은 종말론적인 절기로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케 하는 절기이다.

유월절·오순절은 벌써 그 신약적 구속의 진리가 성취되었으나 아직 초막절은 성취되지 않았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성취될 것이다.

둘째로, 이 세 절기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교훈을 보여준다.

이제 이 세 절기를 지키는 규례에서 찾아 보자.

1. 유월절 —————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에서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바로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은 “먹는 일” “누룩없는 떡” “양고기” “쓴 나물” 등을 먹는다(출 12:8~11, 43~46).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다(요 6:53~59). 여기 먹는 일은 영적인 체험으로 믿음을 뜻한다.

구원의 진리는 내가 믿어야 한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믿어야 하며 체험하여야 한다

2. 오순절

오순절을 지키는 규례에서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바로 “헌신”이다. 구속함을 받았으면 헌신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은 첫 열매를 단으로 묶어서 제단에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드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레 23:12~22).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께 헌신하여야 한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롬 12:1)

3. 초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에서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바로 “즐거워하라”는 것이다(신 16:13~15). 그래서 이 절기를 “회락절”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는 규례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먹어라” “드리라” “즐거워하라”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믿음, 사랑, 소망과 연결된다.

유월절의 “먹어라”는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믿음의 체험으로, 오순절의 “드리라”는 헌신하는 사랑으로, 초막절의 “즐거워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이다.

그러기에 “믿음” “사랑” “소망”이 항상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하듯 유월절의 체험하는 믿음, 오순절의 헌신하는 사랑, 초막절의 예수님의 재림을 즐거워하는 소망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

II. 추수감사절과 초막절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흔히 말하기를, 1620년 9월 6일 영국에 살던 청교도인들이, 당시 영국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함으로써,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3개월에 걸친 대서양 횡단 항해 끝에 미대륙에 도착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끝에 첫 농사를 추수하면서 감사절을 지킨 일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 청교도들이 지킨 감사절은 오늘의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들이 꼭 본받아야 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일이다.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근거는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민이 지킨 세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있는 것이다. 사실 선민이 지킨 세 절기가 모두 감사

절기인 것이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이요,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민들로 하여금 삼대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하셨다. 그러기에 감사생활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살전 5:18), 은혜 받은 성도의 생활의 기본 바탕이어야 한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여야 할까.

첫째: 유월절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 먼저 감사해야 한다.

♪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찬송 457장 1절)

둘째: 오순절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

● 교회를 주신 은혜, 좋은 교회(충현교회)를 주시고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은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은혜.

● 선교적인 큰 사명을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세째: 초막절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 초막에 거하는 나그네 인생인데 금년 한 해도 개인, 가정, 나라를 오늘까지 광야같이 험한 환경에서 보살펴 주신 은혜.

● 금년에도 분에 넘치도록 풍작으로 추수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초막절이 보여주는 구속의 진리와 즉, 초막에 거하는 나그네 인생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영원한 천국집을 사모해야 한다.

이제 머지않은 앞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세상의 심판과 영광스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랑 맞을 준비를 잘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한다(마 25:10).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中

감사를 아는 삶

디모데 전서 1 : 12~17



이 세열 목사

11 월은 추수의 달이요 또 감사의 달입니다. 농민들은 1년간 농사를 잘 짓고 추수를 마친 후에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지난 1년간의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달입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테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동양의 의인이요 그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욥에게 홀연히 큰재난이 임했습니다. 자녀와 소유물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는 악창이 나서 괴로웠고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찬송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저주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욥의 깊은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자녀와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생명도 가정도 물질도 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찬송했던 것입니다. 욥은 청지기 자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곡식을 자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어 쌓아놓고는 “내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했던 것입니다.

우주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면서, 관리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다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첫째,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요, 찬송의 조건이 됩니다. 욥과 같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생활합니다.

둘째, 환란에서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어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지팡이 하나 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가운데 두 떼를 이루는 복을 받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환란에서 구원해 주시고 ‘네 소시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말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잘 되면 과거의 어려움을 때, 환란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축

감사는 믿음의 척도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감사한 마음과 정비례해서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감사가 자라는 겁니다.

복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방자해 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어려울 때 환란 날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세째, 죄에서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 칭했습니다. 실은 모든 인간은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는 적게 지어도 죄인이요 많이 지어도 죄인입니다.

자기는 죄없다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장님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자기 죄를 많이 보고 ‘나는 죄가 많아서 괴수니라’ 하는 것은 그만큼 죄를 많이 보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죄에서 구원의 은총을 무엇으로 감사할 다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생명을 다해 감사해도 부족한 것 뿐입니다.

죄에서 구원은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내세에 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네째,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궤방자요, 포행자요 꺾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속죄함을 받게 되고 또 충성되이 여겨 봉사의 직분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궤방자요 꺾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치고 궤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주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봉사자의 직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의 품꾼과 같은 우리입니다. 종일토록 놓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것을 명하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전부 놓고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없으면 놓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일은 무가치한 일입니다. 보람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게 했습니다. 감사한 것 뿐입니다.

다섯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려울 때나 환란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고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음에 직면해서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궤방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믿는 이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궤방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빈한한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도 생활비 전부를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은 감사한 마음과 정비례해서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감사가 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을까? 그것은 곧 믿음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사회의 불행한 자들은 모두 다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큰 보화로 큰 축복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문인 키케로는 "감사의 마음은 최고의 미덕일 뿐 아니라, 모든 미덕의 어머니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불순종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순종합니다.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태하고 불량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고를 내는 문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감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를 배신하고 국가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신문지상에 외국에 유학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복귀의 간첩에 포섭되어 간첩 활동을 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도 국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나라를 팔아먹고, 회사를 팔아먹고 부정사건을 내는 것은 모두가 국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만 알고 국가와 민족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애들을 키워보면 감사한 마음이 없는 애는 커서도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한 마음은 모든 선행과 봉사과 희생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 마음 속에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성공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도 잘하고 어려워도 참고 이기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서도 봉사도 잘하고 화평하고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잘됩니다. 교회의 전도생활, 교회봉사생활, 구제생활, 심방생활, 알게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합니다. 바울사도가 어떻게 전도를 잘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필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전도했습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는 귀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감사한 마음은 큰 보화로,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불행한 자들은 모두 다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해질 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불평하고 불만해지고 불순종하며 실패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바울의 교훈을 깊이 연구하고 체행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야겠습니다.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어려울 때나 부족할 때나 고난당할 때에 감사하는 생활을 배워야겠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봉사하며 전도하며 충성하는 직분을 주신 은혜, 마음속에 믿음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생활을 하게 하시는 은혜등 보답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교회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병원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구제사업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생활은 감사에 대한 보답이며 크신 은혜의 보답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분은 세상에서 자랄 때부터 못된 짓하고 형무소에 가서 복역하고 사형장에 가서 죽었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왔으니 나의 감사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부터 교회생활을 하고 직분생활에도 충성하며 살다가 일 평생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천국에 왔으니 내가 제일의 감사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누구의 감사를 까요? 우리도 감사생활을 합시다. 中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행 13 : 47)

지난 10월 4일과 5일 이틀 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선교세미나에서, 애굽의 이 준교 선교사와 인도네시아의 서 만수 선교사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을 요약소개함으로 온 교회의 선교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교사역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찾아보고자 이 기사를 마련하였다.

《편집실》

1. 애굽편 - 이 준교 선교사

어려움 없는 선교지가 없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선교사란 없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만큼, 직접적인 위기의식이나 느낌을 피부로 느낄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회교권에 속한 나라들에서 선교하는 일은 대단히 힘든 것 같다. 즉 외국인이 회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일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러나 이 준교 선교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신다고 힘주어 말씀한다. 이 선교사는 3년간 갓은 고생 끝에, 애굽에 10개도 안되는 외국인 교회 중의 하나로 한인교회(韓人敎會)의 인가를 받으시고 애굽 정부로부터 정식 노동허가를 받아서 「카이로 한인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애굽선교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된 것이다.

(1) 애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무슬렘국가인 「이집트 아랍공화국」은 우리나라의 4.5배의 땅 면적에 5.5%만이 경작이 가능한 사막의 나라이다. 인구는

약4천4백만명 정도이며, 인종적으로는 함족 계통이었으나 수천 년에 걸친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혼혈족이다. 공용언어는 「아랍어」이며, 상류층은 영어, 불어, 독어 등도 사용하며, 교육수준은 70%정도가 문맹이지만, 요즈음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기후는 아열대성 사막기후로써 38~40℃를 오르내리며 비가 거의 없고 먼지가 많다. 특히 봄(2월 중)에는 하마썬이라는 무서운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이 때문에 안질과 호흡기 질환의 환자가 많다.

국민소득은 450달러로써 1950년대의 한국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교통이 무질서하며 혼잡하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기독교는 몇 퍼센트 안되는데다가 애굽정통교회가 대부분으로서, 애굽 특유의 교회로서 콕틱 교회로 불리며 로마 카톨릭교회와 매우 비슷하며 사제도 신부라고 부르며 예배도 미사라고 부른다. 이외에 10여개 교파가 있으나, 외부의 도움없이 자립하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

(2) 지난 3년간 해온 일은

① 아랍어 훈련과 현지파악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입국비자를 받을 수도 체류할 수도 없는 나라이므로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에 등록하여 아랍어도 배우며 현지파악에 힘써왔다. 한인교회가 정식 외국인 교회로 인가를 받아 체류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아랍어 훈련과 현지 파악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② 카이로 현지교회 인가와 거주허가

60세대 90여명의 한국인들 - 건설회사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전도 및 예배인도를 하면서, 외국인 교회로 정식 등록허가를 받기까지 노력해 왔고, 이제는 애굽노동성의 노동 거주허가를 받았다.

③ 현지인 교회와 현지 교단과의 교류

이러한 유대관계는 현지 복음전도에 필요했으며, 애굽복음주의 교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④ 애굽 농촌교회에 대한 재정지원

어려운 농촌교회와 개척교회의 재정지원과 예배당 짓는 일이 최대문제이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으나, 그곳의 형편은 교회당만을 짓겠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평생 안아온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⑤ 협력 동역자를 돕는 일

현지인이며 젊은 복음주의 신학교수 한 분을 정기적으로 돕고 있다.

⑥ 신학생을 위한 장학사업도 하고 있다.

⑦ 학원선교

현지인에 대한 전도는 현지인 사역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외국인이 전도했다가는 추방 당한다.

⑧ 현지인 목회자 훈련

제1차로 1982년 8월 6일부터 8월 13일까지 김 창인 목사, 신 성종 목사, 이 중운 목사, 세 분을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훈련하였다.

⑨ 농마주이들에 대한 전도

애굽 정부에서도 외면한 인간이하의 상황 속에서, 소외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는 6~7%의 이름만 가진 기독교인이 있다. 성경도 교회도 모르는 그들에게 전도하고 있다.

⑩ 교회건축

애굽의 토지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아닌 현지인 목회자로 하여금 대지를 구입케 하여 선교관을 짓도록(4억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고 있다. 또, 현재 3군데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있다.

(3) 앞으로의 계획

① 자립하는 교회로서 성장시키려 한다.

② 농마주이에 대한 전도계획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가르치고, 직업 훈련도 시켜서 자립케 하며, 진료소도 계속 개설하려 한다.

③ 학원선교

현지인 사역자를 각 학교에 계속 보내어 전도를 하게하려 한다. 모든 일을 그렇게 하고 있듯이 이 일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학생이 아닌 사람은 학교에 못들어간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며, 학원에서 학업 이외의 말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는 계속 추진되고 있다.

④ 애굽 복음주의 신학대학교 출강

전체 학생이 70명이지만 제자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출강하려고 한다.

⑤ 선교관 건립

외국인으로서의 안되지만 방법은 있다.

앞에서 교회 짓는 방법이나 선교관 건립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은밀히 해야 할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 우편에 대하여 알아 두어야 할 일. ———

서울에서 카이로까지 편지가 왕래하려면 적어도 20일 이상이 걸린다. 소포는 항공소포인 경우에 빨라야 두 달이 걸리며, 배는 3~4달이 걸린다. 그러므로 현지 사정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 이 준교 선교사는 앞으로 선교지에서의 선교방법과 사명에 대하여 간단하지만 힘주어 말씀하시길 — 다짜고짜 용감히 전도했다가는 즉시 추방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지 한국인 교회를 배경으로 전도하므로써, 지혜롭게 하되, 애굽의 기독교인 가운데 이름만 기독교인들인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점차 무슬렘교도들에게도 전도하되, 「보내심을 받은 자」로써 사명을 다 할 것이라고 「알라두르」(아랍어: ‘끝까지’라는 뜻)를 거듭 강조하신다.

2. 인도네시아편 —서 만수 선교사

인도네시아는 2만개의 섬 가운데 3천여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으며, 300개의 방언과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250여 종족이 살고 있다.

그리고 인구 1억5천만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일천만명쯤 될 것으로 추산되며, 자카르타에는 450년 된 교회도 있지만, 서부 오지(奧地)에는 아직도 돌을 가지고 연장으로 사용하는 석기시대적 부족이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임을 기억해야 한다.

(1) 질병과 물 ———

말라리아나 독충이나 많은 질병의 위험은 항상 곁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이 나쁘다. 이 물 때문에 병고를 치른 적도 있다고 서 선교사는 말한다.

그 원주민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물 즉 식수원에서 그릇을 씻고, 빨도 씻고, 목욕도 하고, 용변

도 보고, 세수도 하고, 마시기도 하므로 물 때문에 수인성 종양 등 물에 의한 세균 감염으로 병고를 치루기도 했다 하신다.

한번은 전기면도기가 없어서 칼면도를 그 물로 하였는데 수인성 종양으로 고생을 하고나서, 그 뒤로 면도 면도를 못했더니 얼굴이 수염으로 정글이 되었다고 옛날 선교 초기의 사진을 설명하셨을 때, 모든 교우가 같이 폭소를 나눴다.

(2) 종족에 대한 이해

250여개의 방언으로 각 종족을 이룬 인도네시아 북쪽 수마트라에는 밧닷족이 살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식인종이었다. 그들에게 독일의 선교사 두 분이 처음 도착해서 전도하자 곧 잡아 먹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된 선교사들의 복음전도로 인해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밧닷교회를 이루고 있다.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은 지금도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종족을 멸시할 뿐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거래하고, 외부인들을 처음 대할 때는 자세히 살펴보고는 「형제여!」라고 말한다. 이 말은 「너는 별거 아니다!」라는 의미의 호칭이다. 그 다음에 몇 마디를 더 나누어 보고서 자기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되면 「아저씨!」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기보다 틀림없이 월등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버지(빠빠)」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들이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음을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밧닷사람들에게 서 만수 선교사는 하룻밤 사이에, 세 가지 호칭을 다 들었으며, 급기야는 외부에서 온 「명예추장!」으로 공식 추대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각 종족마다 그들의 관습이 다르다.

(3) 그들의 문화 관습에 대한 이해와 전도

원주민들은 옷을 거의 벗고 사는 그들의 습관 때문에, 옷을 주면 그 앞에서는 마지 못해 입지만 돌아가서는 곧 벗어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과 함께 식사때는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식사를 한다는 것이다. 수저를 사용하면 수저의 쇠가 이빨에도 부딪히고, 혀에도 선뜩선뜩하게 부딪히는 것이 기분도 나쁘고 밥 맛도 안나기 때문에 손으로 맛있게 먹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생활의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식사는 반드시 오른손으로만 해야하고,

왼손은 휴지 대신에 쓰는 손이므로 왼손으로 그들에게 어떤 것을 건네 준다는 것은 매우 큰 실례이며, 성격이 급한 이는 화를 내기도 한단다.

서 만수 선교사는 오히려, 이들의 이러한 생활관습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전도하고 있다. 한 예로,

서 선교사는 항상 잘 드는 칼을 전도 여행 중에는 갖고 다니면서, 원주민과 식사하기 전에, 나무가지를 잘라서 젓가락을 만들어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 젓가락 식사 광경이 곧 원주민들에게 호기심 어린 구경거리가 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밥 먹는 것조차 잊고서 쳐다보고 또 동네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든다. 그래서 서 선교사는 일부러 천천히 식사를 하므로써 동네사람이 모두 모이게 한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교하여 지금은 38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교회당도 다섯 곳에 지었으며, 현재 새로운 선교관도 짓고 계시다.

(4) 사탄보다 더 지혜롭게

1978년 인도네시아는 종교법을 만들어 놓고 선교사들을 불러 서명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인도네시아에서(무슬렘이 아닌) 다른 종교를 선교할 목적으로 금품이나 의료적인 호의를 일체 베풀 수 없다는 것이며, 이 법을 위반하면 24시간 이내로 추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전도의 문을 막으려고 여러 방법을 개발하면 선교사들은 더 지혜롭게 연구하여 전도방법을 만든다. 그리하여 전도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 「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전할 수 없다」는 종교법을 잘 연구하여서 전도지 끝에는 조그맣게 더 인세를 해 넣는다. 「이전도지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보십시오!」라고.

효과적인 선교방법이란 따로 없다고 서 만수 선교사는 역설한다.

대문을 막으면 창문으로라도 들어가며, 아침에 안되면 점심에, 점심에 안되면 저녁에, 저녁에 안되면 한밤중이라도 전도하러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교사요 선교사명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선교사란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선교를 막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선교에 대한 방법을 묻지 말고, 오직 주의 부르심에 응하여 과송된 것을 기억하고, 「다 함이 없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방법이요, 사명이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

새해 교회조직개편의 의의와 그 내용

최 석주 장로
〈기획조정실 실장〉

지난 10월 13일 당회는 1984년부터 시행될 교회 조직개편안을 가결하였다.

그간 해마다 교회조직에 대한 부분적 개편과 개선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이번에 가결된 교회조직개편안은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중현교회가 설립된 30년 이래 가장 광범위하며 전반적이라는데 특징이 있으며, 개편의 근본적 동기가 새성전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중현교회의 새로운 역사적 전기(轉機)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제 온 교회가 이를 잘 이해하고 시행함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당회의 본래적인 의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회조직개편안이 마련되기까지의 과정과 개편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I. 교회조직개편안이 마련되기까지
- II. 교회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목표
- III. 교회 각위원회 조직구성에 있어 고려된 기본 사항
- IV. 개편된 교회 주요조직의 소개
- V. 교회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적 제언과 필요 후속 조치

1. 교회조직개편안이 마련되기까지

1953년 중현교회가 설립된 이래, 30여년을 지나는 동안 몇번의 큰 전환기가 있었다.

교회설립 10년이 되던 1963년까지는 교회당 신축과 아울러서 전도활동에 온 교회가 힘을 기울여 교인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부흥기를 맞았고, 이러

한 교회의 급성장을 바탕으로 1963년부터 1967년까지는 교육, 전도, 구역 등 교회 각 분야별로 조직의 형태와 기초를 굳히기면서 천국일꾼을 키우며 전도에 전념하는 특징있는 교회로서의 성격을 뚜렷히 해 갔다.

1968년 해외복음선교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면서, 중현교회의 활동무대는 세계로 넓혀지기 시작했고, 각 분야의 교회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각 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성된 위원회는 점차 전문화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60년대 중반부터 장소를 넓히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더 큰 교회당을 짓기 위해 1969년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실상 1968년 이래, 활발하게 활동하며 급성장하던 각 위원회의 활동은 1970년대 초반에 그 절정을 이루었으나, 장소적 여건의 제한은 이같은 교회 각 분야의 활동을 둔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새성전건축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었고 실제로 새성전건축은 중현교회의 지속적 성장과 부흥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적 제한에 따른 각 위원회의 활동의 둔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8년 이래 수차례 걸쳐 교역자 수련회와 장로수련회를 열었고 모일 때마다 교회성장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다.

특히 새성전건축이 착수되면서, 1980년에 이르러서는 새성전이 완공되어 장소적 제한 여건이 해소될 것을 감안하여, 교회는 새성전으로 이전 후의 중현교회의 새로운 방향모색과 1960년을 전후하여 있었던 것과 같은 제2의 폭발적인 중현교회 부흥의 길을 찾기 위하여 당회는 더욱 부심하여 왔다.

즉, 새성전이 완공된 후의 「시대에 부응하여 지속

적으로 부흥성장하는 충현교회 미래의 청사진」 마련이, 새성전 건축과 함께 당회의 주된 관심사였고, 실제로 가장 큰 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충현교회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방향 모색에 있어 구체적으로 시도된 것이 3 차례 걸쳐 실시된 「교회성장세미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첫번째는 1982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렸던 「제1 차 교역자성장세미나」였다. (교회성장과 행정 / 박조준, 교회성장과 구역운영 / 김선도, 교회성장과 전도 / 이호문, 교회성장과 교역자 / 박선희) 여기에는 교역자들만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역시 충현기도원에서 열렸던 「제2 차 교회성장세미나」에는 일백여명의 교역자와 장로가 함께 참가하였다. (교회성장과 평신도 지도자 / 김홍도, 교회성장과 구역 운영 / 김선도, 교회성장과 조직운영 / 이호문, 교회성장을 위한 현대교회 진단 / 박선희, 교회성장과 선교회 운영 / 김선도)

이같은 2 차례에 걸친 교회성장책의 모색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연구·제안된 것이, 지난 6월 2일, 3일 양일간에 걸쳐 본당에서 열렸던 「제3 회 교회성장세미나」였다.

이 세미나의 특징은 모두가 우리교회 교역자와 장로들로 강사진이 구성되었으며 장기간 개별적으로 연구하게 함으로 그 내용 또한, 우리교회 현실을 근거로 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이었다는 점이다. (예배 / 김창근·허종욱, 교육 / 최봉호, 전도와 선교 / 오치용, 교회조직 / 장정일, 교회행정 / 박승준, 교회문서 / 조현명, 새성전 이전준비와 새살림 / 최석주·이응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제안된 의견들은 충현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꼭 반영해야 될 실제적이고 유익한 제안들이었다.

이렇게 제안된 교회성장의 방향과 좋은 의견들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즉 거의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있는 위원회 중심의 교회조직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위원회간의 횡적유대를 강화시키면서 종적으로 당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교회의 주어진 목표를 통일성있게 강력히 추진해 나갈 조직체로 교회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1983년 충현교회의 조직을 종전과 달리, 교

회 전반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 개편은 또한, 교회가 수차에 걸쳐 모색해 온, 지속적으로 부흥성장하는 새로운 충현교회로서의 미래의 청사진을 현실화 시키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전제되어야 할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해 교회조직개편은 좀 더 나은 방법의 선택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향후, 충현교회 10년 내지 20년, 아니 그 이상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왜 당회가 새성전 이전에 앞서, 교회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그 의미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적극 협력함으로써, 교회가 지향하는 부흥성장하는 교회로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회조직개편의 취지와 목표

(1) 교회조직개편의 취지

교회의 새성전 이전에 따른 교회조직개편으로 충현교회의 목표인 천국일꾼양성·북한선교·민족복음화·세계선교·새성전건축을 달성하여, 교회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고, 일하고, 전하는 교회로서 시대적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며 지속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자 함이다.

(2) 교회조직개편의 목표

첫째, 교회의 교인배가운데체제

- ① 1 차목표 - 출석교인(장년) 10,000명
- ② 2 차목표 - 출석교인(장년) 20,000명
- ③ 3 차목표 - 출석교인(장년) 30,000명

둘째, 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체제

① 구역활동의 강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모든 지체가 온전히 연합하여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며 목회자들이 가급적 개별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과 훈련의 강화로 전교인의 철저한 말씀의 무장은 물론, 제직 및 각 기관 지도자들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여 유능한 교회일꾼을 육성하며 새신자 양육에 더욱 힘쓴다.

③ 전도와 선교업무의 강화로 선교현장과 연결짓는 선교현신자의 실제적 교육과 훈련이 되게하며, 특히 기초확립과 업무내용을 구체화하여 전교인을 전도요원화한다.

세계, 교회행정처리의 현대화체제

① 교회 각 사무처의 사무기구와 배치운영을 새성전의 현대식건물에 조화되도록 점차적인 현대화를추진하며,

② 특히, 교회 각 분야별 행정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방법(내규)을 성문화하고,

③ 현대식 행정처리 방법과 기자재를 도입하여 소수의 고급인력으로 최대의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3. 교회 각 위원회 조직 구성에 있어 고려된 기본 사항

(1) 전체성

각 위원회의 조직은 교회의 목표에 일체되도록 배려하였다.

(2) 목적성

각 위원회의 조직은 그 위원회에 주어진 목적에 충실하도록 배려하였다.

(3) 구조성

각 위원회의 조직은 가능한 간단하게 함으로 기동성과 신속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배려하였다.

(4) 기능성

각 위원회의 조직은 통제기능(행정기능), 실천기능(업무구분과 분담의 명확), 계획기능(연구소)이 겸비되도록 배려하였다.

4. 개편된 교회조직의 소개

1983년 새로이 개편된 교회조직과 각 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1983년 총현교회조직(도표 1 참조)

(2) 구역권찰회(도표 2·3 참조)

(3) 예배위원회

(4) 성가위원회(1984년 신설)

(5) 전도위원회

(6) 북한선교위원회(1984년 신설)

(7) 총현세계선교회

(8) 교육위원회(성경연구원 포함)

(9) 사무국(前 총무국을 개칭)

(10) 기획조정실(1983년 8월 신설)

(11) 재정위원회, 건축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 총현동산, 기도원,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장학회 등은 변동 없음.

(주) 지면관계상 각 위원회의 조직도표가 실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 각 위원회 조직표를 참고하시고자 하는 분은 기획조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회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적 제언과 필요 후속조치

(1) 결론적 제언

조직은 하나의 뼈대에 불과하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조직형태라 하더라도 거기에 피와 살이 없는 생명력이 결여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용한 것이요 교회부흥과 성장에 있어 결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조직개편에 따른 최대의 과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직체로 활성화하며, 실제 목회영역에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적극 살려나가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는 결국 그 조직을 주도하는 사람에 따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따라서 유능한 일꾼들이 있을 때에, 조직의 구성에 있어 다소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훌륭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실제적인 면에서 당회의 계속적인 관심과 주도가 새로이 개편된 조직의 성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당회 산하 각 지회의 임역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호응하며 협력하느냐 하는 점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필요 후속조치

①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른 각 위원회의 회칙을 수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뚜렷한 개인적 책임이 없이 회의만 참석하는 위원이 없도록 각 위원의 담당 업무규정을 만드는 일이다.

② 각 위원회의 주요 임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설명으로, 새로이 개편된 조직의 취지와 성격등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일이다.

③ 각 위원회의 연구기능을 최대한 지원하여, 각 위원회의 활동을 실재와 함께 이론적으로 발산시키고, 그 결과들을 잘 정리하여 자료로 남겨, 후임자가 충분히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④ 개편된 조직은 최소한 3년 이내에는 크게 바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 中

표 1 총현교회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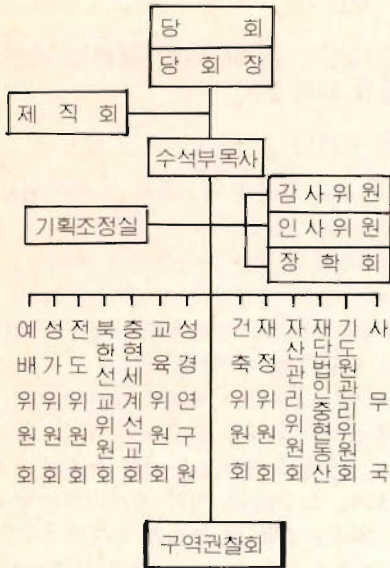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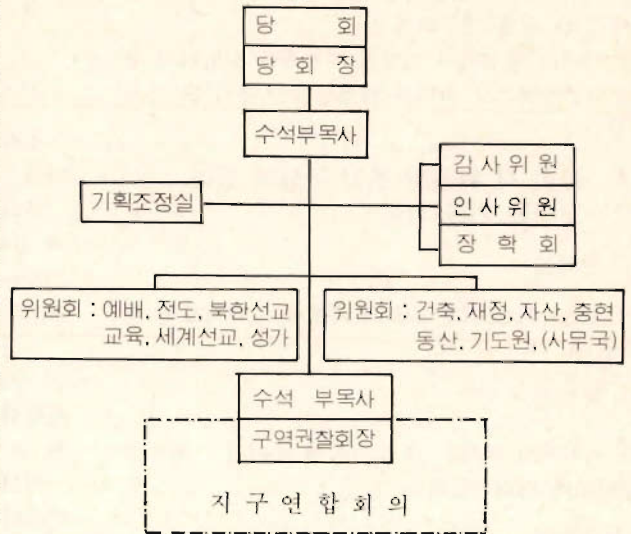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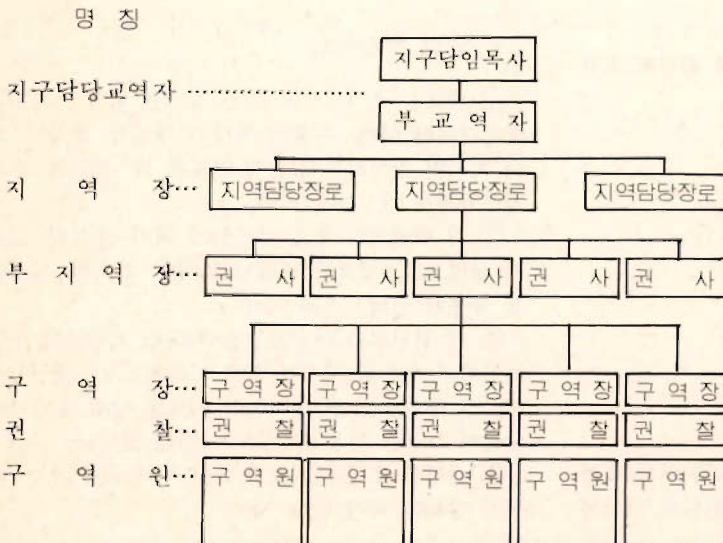


표 2 구역권찰회 (1)



제 1 지구 제 2 지구 제 3 지구 제 4 지구 제 5 지구 제 6 지구 제 7 지구 제 8 지구 제 9 지구 제 10 지구

표 3. 구역권찰회조직 (2)



1984년 각 위원회 위원장

감 사 위 원 회	윤 종 순
인 사 위 원 회	조 현 명
장 학 회	정 석 태
기 획 조 정 실	최 석 주
예 배 위 원 회	김 원 남
성 가 위 원 회	임 광 식
전 도 위 원 회	장 정 일
북한선교위원회	오 진 국
총현세계선교회	한 경 일
교육 위 원 회	김 수 성
건 축 위 원 회	김 기 정
재 정 위 원 회	이 응 선
자산관리위원회	윤 종 성
재단법인총현동산	이 창 업
기도원관리위원회	최 상 규
사 무 국	이 태 규

(1983. 10. 13 당회)

사명받은 이사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결과-

이사야 6:8~13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하
던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
나님의 크신 영광과 스랍 천사들
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자기 입의
부정함과 허물을 발견하고 거꾸
러져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스랍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 숯불을 이
사야의 입에 대어 죄악을 제거하
여 정결케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 주셨습니
다. 이렇게 새사람이 된 이사야
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 이사야는 어떻게 사명을 받 았습니까

(1) 귀가 열려 일꾼을 찾으시
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
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
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 6:8)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제단 숯
불로 온갖 허물과 죄를 사함 받

고 새사람이 되자 귀가 열렸습니
다. 신령한 귀가 열려 하나님께
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
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
리를 위하여 갈꼬” 일꾼을 찾으
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
게 하였습니까?

(2) 자발적 헌신으로 주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
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

일꾼을 찾으시는 주의 목소리
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 내
가 갈까 말까? 가려면 고생스러
울텐데 그만 둘까? 생각 좀 해
볼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
내소서!” 당장 순종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천사가 우물쭈물하지
않고 당장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
를 보내어 주세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당장에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
내소서” 하는 이 말은 자발적으
로 헌신하였다는 말입니다.

천 번 만 번 멸망 받을 내가 용
서를 받고 새사람이 되어 하늘나
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
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
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바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온영혼 다주께드리니
이세상 고락간 주인도하시고
날주관 하셔서 뜻대로합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
고 욕심을 떠나 겸손하게 일하다
가 죽기로 결심하고 사명에 나섭
니다.

2. 이사야는 어떤 사명을 받았 습니까

(1)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언하라는 어려운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
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
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임

러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사 6:9~10)

이사야가 순종하여 나설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야 네가 가겠느냐?”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음, 가라! 가서 백성에게 이 말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백성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 망하리라! 망할 것만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저주를 선언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과거에 죄를 한없이 많이 지었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망하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까! 전도자가 제일 하기 힘든 말이 이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시라”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이렇게 전도하기도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저나 받지!”

이러면서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보시오 당신 예수 믿읍시다. 안 믿으면 지옥가요!”

“뭐야 지옥 가? 못돼 먹은것! 왜 지옥가라고 해?”

하며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당신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으니 멸망할꺼요. 멸망하시오!”

“뭐야 남보고 멸망하라고!?”

하며 뿔박을 안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마음이 둔했으니 이제는 망하겠다”

망할 것을 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만큼 망하게 됩니까?

“너희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십분의 일이 남아도 그것까지 망하겠다고 해라!”

이거 얼마나 하기 힘든 말입니까! 이것은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 하십시오)

신변에는 위험이 오고 마음은 한없이 아프고

자기 백성이 망할까봐 성전에 들어가 울던 이사야인데 자기 백성이 십분의 일도 남지 않고 다 망한다고 선언하려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릅니까?

더우기 자기 마음이 아픈 것을 알아 줄 사람은 하나도 없이 뿔박만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지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나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면 사랑으로 교훈과 권면을 받고, 범죄했지만 아직 회망이 있을 때에는 때리시면서 권면하시고, 정말 마지막에 회개도 안하고 회망도 없을 때에는 멸망의 선언을 하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세 계단이 있습니다.

잘못하고 약하여 죄를 범해도 “야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위로와 권면을 주시고, 그래도 잘못하게 되면 때려서라도 잘못 온 길을 떠나게 하시고, 때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엔 멸망을 선언해 버리십니다.

지금 이사야에게는 멸망을 선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멸망의 선언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하였다면 멸망의 선언이 떨어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멸망의 선언이 떨어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멸망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려하던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황폐하여 사는 사람이 없겠다. 굶어 죽고 병이 나서 죽고 전쟁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굉장하게 잘 지었던 집에도 살 사람이 없이 텅텅 비게 된다. 결국 마지막엔 전 인구의 십분의 일도 못 남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어떤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2) 하나님의 은혜로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겠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사 6:13)

모든 것이 다 황폐하고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남은 식구가 있습니다. 누가 남습니까?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를 잘라 버렸는데 그루터기가 남은 것같이 거룩한 씨가 남아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씨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씨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인친 백성은 중간에 망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빠져 죽어도 노아의 열 식구는 하나님이 간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간수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도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는 개 한마리도 허를 놀리지 않고 조용히 그밤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야 합니다. 그 피에 젖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묻으면 악마가 손을 못내고 도망갑니다. 천사가 지킵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속에 젖어서 거룩한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며 일하다가 천국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이 1:6)

묘한 세상 주시고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새96장, 합30장

묘한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사람 베풀어 항상길러 주시니
(후렴)우리주님 예수께 감사찬송 합니다

우리의 영안(靈眼)을 활짝 열고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오묘하신 솜씨를 바라보자!

끝없이 광활한 대우주의 신비! 철따라 피어나는 여러모양의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꽃들! 장엄하고 엄숙한 크고 작은 산악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끝없이 펼쳐진 푸르른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창조의 작품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뿐인가?

봄에 농부들이 뿌린 씨앗이 여름내내 뜨거운 태양과 알맞게 내려 주시는 비를 맞으며, 무럭무럭 자라나아, 온 누리가 황금물결로 파도치며, 온갖 과일들이 탐스럽게 영그는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려야 함이 마땅치 않겠는가?

이 찬송은 폴리오 샌포드 피어포인트(Folliott Sanford Pierpoint)가 29세 때인 1864년에 쓴 것으로, 늦은 봄, 그의 고향 바쓰(Bath) 부근에 있는 푸른 동산에 올라가 눈 앞에 펼쳐진 평화스런 대자연의 세계를 보고 감동되어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

이 찬송시는 처음에는 6행 8절로 되어있었으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다섯 절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다.

내용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자연, 3절에서는 부모형제와 친구, 4절은 거룩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있으며, 마지막 5절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신 참 기쁨과, 참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다.

이 찬송시에 올겐 연주자이며 지휘자로서, 교회음악을 많이 작곡하였던 콘라드 코허(Conrad Kocher 1786~1872)가 곡을 작곡하였다.

김 창근 목사

〈예배위원장 2지구 심방담당〉



버마 사건과 크리스찬의 각성

10월 9일 주일 오후 들려온 소식은 우리 온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 더 나아가서는 울분을 낳게했다.

바로 버마 참사 사건이었다.

대통령을 수행했던 국무위원급 인사들이 순직했고 여러 관계 인사들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었다.

한 핏줄인 이북동포가 그것도 외국나라인 버마에서 사전 폭발장치를 해놓고 우리나라 국가원수를 살해하려는 그 음모는 공산당만이 할 수 있는 천인공도할 사건이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순직한 외교사절들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리며, 부상 당한 관계인사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납득할만한 사건진상 보고가 명쾌히 알려질 것도 기대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국력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결의했고 반공의식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공고히 하는 한편,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는 의연한 자세가 국민 가슴 속에 솟구쳤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신자들은 이번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거룩한 주일에 있었던 대형사고였다는 점이다.

전국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해 주신 거룩한 날에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자체에 우리 기독교신자들은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님의 날은 일주일간의 고된 세상생활에서 잠시 이탈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와 찬송,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하루종일 경건하고, 거룩되이 지켜져야 하는 날이고 메시지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소망, 기쁨으로 지내는 날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주일에 슬픈 일을 당하고 보니 우리 신자들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신자가 성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참회, 통회, 고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과연 우리 신자들은 세상을 향해 어느정도 빛과 소금의 생활을 했으며, 크리스찬다운 삶을 영위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하고, 패역한 세

대를 향해 「요나」처럼 경고의 나팔을 불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두번째로 사랑의 실천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랑이 너무 많아 교회 부흥에 활력을 주었다는데 최근의 우리 교회들의 상황은 사랑이 배말랐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생활에 너무 집착해서 이웃을 돌볼 겨를이 없으며, 교회 내에서도 자기와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사랑주기를 싫어하고, 경계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언어의 성찬으로서 「사랑」 애기는 무수히 남발하면서도, 「실천」이 결여된 앵무새의 반복작업이 성행하고, 순간과 위기만 모면해 보려는 얕은 지혜들이 속출해서 모처럼 기대했던 꿈이 일그러지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끔 보아왔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준 희생적인 사랑의 모범운동이 전개되어서 삭막한 이 세대에 윤활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운동이 과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모두들 무릎꿇고 통회자복하는 회개운동이 누룩처럼 번져 나가야겠다.

혹시나 의인 열 사람이 없어 우리 한국이 소돔·고모라처럼 멸망할까 두려우며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이웃의 아픔과 굶주림을 외면하고 상처를 주며 질타하는 위선적이고 영웅적인 사고방식을 철저히 배격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운동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운동이 절실하다.

교회가 교회답게 개혁되면서 신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소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고,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원한다. 교회가 세속의 유혹에 휘말리게 되면 그 타락상은 견잡을 수 없으며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게 되고, 주님 재림시 심판의 징벌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버마 사건이 국가간의 이데올로기 측면의 예비전쟁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신을 차려 더욱 기도하며 말세지말의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를 습득해야 할 것이다. †

손 경수 (청년부 부감)

진흙같은 날 불드사



감사에 대해서 크게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적인 감사에 있어서는 후하지만, 절대적인 감사에 대해선 인색한 것을, 나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나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은총의 연속이었던 지난 시간들을 더듬어 본다.

그러니까 3년전 어느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검은 병마가 육체를 한 부분씩 점령하기 시작했다. 24시간 동안 계속 되는 통증에 나는 미칠 것만 같이 괴로왔고 병원과 한의원들을 전전긍긍하면서 침과 뜸으로 온갖 치료를 다해 봤지만 허사였다. 그동안에 겪은 아픔을 전부 다 지면에 옮길 수 없지만, 어쨌든 책상 앞에 단 10분도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나의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심한 통증으로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결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대로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나 자신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즉 내 스스로 신앙이 꽤나 훌륭한 것처럼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볼 수 있

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이때부터 내 안에서는 심한 갈등이 생겼다. 그토록이나 쉽게만 느껴지던 신앙생활이 갈등과 투쟁의 연속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을 처리하시던 그 강한 채찍으로 죄인인 나 자체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최대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의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불순종하기를 더 좋아하였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탐심이 갈등 속에서 나를 괴롭혔다. 이때, 나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준 말씀은 로마서 7~8장이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 부딪힐 때, 느낄 수 있었던 감격과 기쁨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갈등은 언제나 계속 되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앞으로든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육체에 고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기뻐하며만 죽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 참으로 괴로운 투병의 생활들이었지만, 진정한 구원자이

신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나에게 귀한 시간들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지금도 나에게 육신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픔으로 인해 결코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음을 감사드린다. 이 아픔은 곧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며 정욕과 죄악에 빠진 나를 처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채찍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의 삶 가운데 다가왔던 하나하나의 아픔과 절망과 고난을 통해 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과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많은 원망 속에서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한 사랑으로 감싸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린다. 또한 나에게 늘 건강이 주어졌다면 아픈 자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메마른 인간이 되었을텐데 아픈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불순종한 요나같이 방황하던 나였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상하고 찢긴 고독한 형제자매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일으켜 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나를 연단시켜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이제 나는, 어느 한 부분도 나의 소유가 없다. 흠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그 손길에 진흙같은 나 자신을 단지 맡길 뿐이다. 풀무 속에서 일곱 번 단련한 백자와 같이 고운 살결로 구워질 때까지!

== 유 미화

(중등부교사)

꿀밤 이야기

“엄마! 꿀밤이 무서운거야?”

“뭐? 꿀밤?”

“응, 꿀밤말야?”

“꿀밤? 꿀밤이 왜 무섭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꿀밤이 굉장히 아픈거래”

“선생님께서?”

“응—”

“지난 주일, 저녁예배 때에 남자선생님이 기도시간에 눈 뜨는 사람들(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면서) 꿀밤 주신댔어. 근데 그게 굉장히 아픈대어...”

“그래서?”

“나는 꿀밤 안 맞으려고 눈을 꼭 감고, 한 번도 눈 안떴다?”

“그래, 뭐라고 기도했니?”

“기도는 안하고 꿀밤 맞을까봐 눈만 감고 있었어”

“눈만 감았다고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기도지. 그리고 선생님이 기도 다하신 뒤에 ‘아멘’ 했니?”

“근데 난 선생님이 꿀밤 주실까봐 아멘도 못했어”

딸애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통증이 느껴짐은 웬 일일까?

어렸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30여년 전, 학교에서 커다란 주먹으로 선생님이 만들어 보인 꿀밤이.

아직 “기도”에 대한 개념조차 잘 모르는 어린동심 속엔 불끈 쥐어 만들어 보인 꿀밤이 참으로 무서웠나 보다. 어쩌면 가혹한 위협이었던 것 같다.

고사리같은 예쁜 손을 모아쥐고

두 눈을 꼭 감고

단정하게 앉은 모습은

우리의 눈에도 경건한 모습이지만,

‘아멘’ 할 때까지 참아낼 수 없는 아이들

좀이 쭈서서 그냥 앉아있을 수 없는 아이들

잠시라도 안 움직이면, 등이 가려웁고 머리

속, 발가락, 팔꿈치가 가려운 것 같고, 이상해지는 것 같은, 심리적 생리적 현상을 어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래도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주님은 축복하여 주신 어린 생명들.

그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참아낼 수 있어야 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동기는 좋지만...어쨌든 하나님을 잘 소개하기란 쉽지 않다.

강요되지 않은 참 사랑과 진실이 가득담긴 가르침과 고귀한 인격으로 존중받는 만남이, 저 어린 아이들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고 믿어진다.

참자는 딸애의 머리맡에 앉아서

이밤도 기도해야겠다.

어린 생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바른 밤(과일)과 같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풍성한 생명의 호흡이 되기를. †

1983년 가을에 이 복희 씀





해외 선교지·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서 만수 선교사

(1)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 선교 초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우중뽀당을 비롯하여 로타자 지역을 순회함.

(2) 인도네시아 선교부의 현지 이사 중 한 분인 양동 목사가 시무하는 만민교단 우중뽀당 교회에서 연합집회와 로타자 지역 란테빠오 교회에서 계속 집회함.

(3) 장년 28명, 어린이 8명이 결신하였으며 2명에게 세례를 베풀음.

(4) 인도네시아 선교부 개척지는 9월 15일자로 38개처임.

-기도제목-

- (1) 원주민 사역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며
- (2) 선교사역에 협력할 동역자를 위하여

○애굽-이 준교 선교사

(1) 8월 11일, 12일 양일간 자이툰 교회 대학 청년부 하기수양회 강사로 수고함.

(2) 8월 15일 카이로 총영사관 주최 광복 38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함.

(3) 8월 20일 카이로 한인교회 8월 정기기도회 및 성경공부 모임을 가짐.

-기도제목-

- (1) 애굽 현지인의 선교사역 특히 현지인 사역자를 통한 교회 개척사업을 위하여

○벨지움-김 성완 선교사

(1) 벨기에 주재 오·엠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훈련에 참석한 5명을 집견. 주 안에서 기쁘고 유익한 시간을 가짐.

(2) 유학생 1명이 입국하여 새로 출석케 되었으며 기술연수진 중 2명이 출석하여 모두 6명이 됨.

-기도제목-

- (1) 보다 넓은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 (2) 한국에서 오는 기술연수자 수십 명이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되도록

○서독-육 호기 선교사

(1) 7월 3일 주일 뷔츠브룩 교회에서 성경암송대회를 개최, 24일에는 구역별 찬송가 바로 부르기대회를 개최하여 구역을 부흥시키는 계기가 됨.

-기도제목-

- (1) 비스바덴, 뷔츠브룩, 하나우교회의 부흥을 위해
- (2) 선교사역에 동참할 동역자를 위하여

○칠레-유 재일 선교사

(1) 8월 15일 칠레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및 칠레 제1고아원 어린이 총 150명이 어린이 공원에서 그리기대회를 개최 시상함.

(2) 8월 22일 전도지 "당신은 언제 떠나십니까" 15,000매를 발행하여 전도함.

(3) 9월 6일에서 10일까지 김 재창, 조 용덕 목사를 모시고 특별집회및 한인교회 최 인호, 김 영택 집사의 장로장립식 예배를 드림.

기기도제목-

- (1) 칠레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 (2) 한인교회당의 건축이 속히 진행되도록

○파라과이-김 재창 선교사

(1) 원주민 10개 교회에 선교사업을 계속 진행 중임.

(2) 9월 21일 한인묘지에서 추석 성묘 연합예배를 인도함.

—기도제목—

- (1) 교회의 부흥과 10개 원주민 교회의 선교 발전을 위하여
- (2) 경제안정과 별관공사 완공을 위하여

○인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 국

라성충현교회

- (1) 10월 2일(첫주일)부터 예배 처소를 이전하여 예배드립니다.
- (2) 전도위원회와 제1, 제2여전도회의 특별한 사랑 안에 성가대 가운 40벌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3) 틈사 충현교회 강 성진 목사와 전화 연락, 충현교회의 유기적인 관계와 기도의 교제를 나눔.

—기도제목—

- (1)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충현의 식구들을 위해
- (2) 정 상우 목사의 수속을 위하여

○영국-유학전도사(성 주진 전도사)

- (1) 워블든 한인교회에 출석 예배를 드린 후, 김북경 목사와 여러 성도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짐.
- (2) 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영어공부와 수강능력 배양에 주력할 계획임.

○본부소식

- (1) 인도네시아 주재 서 만수 선교사께서 10월 5일 선교보고 후 10월 7일 출국함.
- (2) 애굽 주재 이 준교 선교사 가족이 건강진단 및 선교업무 협의와 보고차 9월 16일 일시 귀국하여 약 1개월간 체류, 10월 12일 출국함.
- (3) 10월 4, 5일 양일간 충현세계선교회 제2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서 만수, 이 준교 선교사께서 선교지의 여러 가지 업무보고 및 슬라이드를 상영함.
- (4) 충현세계선교회에서는 11월 중순까지 연말연시를 기하여 선교사들에게 보내드릴 카드와 편지, 선물 및 현금을 접수하고 있음, 각 구역이나 교회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선물일 경우에는 선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기도제목—

- (1) 모든 선교사 내외분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하여
- (2) 모든 선교사의 역량과 결실있는 선교사역이 되기를
- (3) 선교지 교회들의 부흥과 그곳 교우들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10월호 정정란

- p. 3 ○이달의 말씀/교회의 부흥은
→이달의 말씀/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 표지해설(하)
평양장로회 신학교 제11회(1007년7월)
→평양장로회 신학교 제1회(1907년 7월)
- p. 19 상 2 칭찬받는 되기를→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 p. 24 좌하 10 허는 곧 불의요→허는 곧 불이요
좌하 9 우리의 지체→우리 지체
좌하 8 못되 먹으라면→못되 먹으면

교회 소식



□ 장로장립예정

오는 11월 3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제24대 장로장립식이 있을 예정인데, 이 날의 설교는 김양수 목사, 권면은 김현중 목사, 정익수 목사, 기도 차낙현 목사 그리고 축도에 김 창인 목사가 담당하실 예정이며, 장로장립 하실 분은 다음과 같다.

김영근 김영길 김재균 김중구 김창욱 김천재 문홍구 박관영 박용삼 박철훈 송환창 오정수 윤광일 이상현 이영세 이창호 정운석 조인재 차신득 최무길

(가나다순)

□ 83년 제4차 성례식

(1) 세례식

10월 27·28일 학습·세례문답이 있은 후, 28일 유아 및 장년 세례식이 각각 있었다. 이번 성례식에 참여한 교인수는 학습 87명, 세례 106명, 유아세례 48명, 입교 14명, 개종 4명 등 모두 259명이었다.

(2) 성찬식

10월 30일(주일) 1·2·3·4·5부 대예배 시에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 전도사 다섯 분 강도사 인허 받음

본 교회에서 시무하시는 정은표, 정관호, 윤태곤, 김장근, 김

성주 전도사 등 다섯 분이 지난 10월 중순과 하순에 각 해당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이로서 우리교회는 1983년 10월말 현재 목사 27분(협동목사 4분, 유학목사 2분 포함), 강도사 5분, 전임여전도사 8분, 교육전도사 16분 등, 모두 56분의 교역자가 된다.

□ 제2회 선교세미나

10월 4·5일, 이틀간 본 교회에서 선교지 풍물 전시회 및 선교지(인도네시아와 애굽) 보고를 겸하여 선교집회가 본당에서 있었다.

첫날인 10월 4일은 애굽선교사 이준교 선교사가 애굽에 대한 선교발표 및 선교지에 관한 슬라이드 사진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5일에는 인도네시아선교사 서만수 선교사의 발표가 있었는데, 모두 약천여명이 이번 선교세미나에 참석했다.

□ 교육위원회

(1) 새가정부 수양회

새가정부는 10월 3일 충현기도원에서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인가?』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가졌다. 강사는 윤영탁 목사(새가정부 지도)

주교 16개 부서 가운데 하나인 새가정부는 심혼부부와 결혼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형제자매들과 바른 가정관을 배우기 원하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고, 진지하게 토의하는 시간을 매주 오전 11시 50분부터 새가정부실에서 갖고있다.





(2) 영아부 계절학교

10월 18·19일, 이틀간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주제로 이두란 전도사님을 모시고 제17회 영아부 계절학교를 가졌었다. 가족을 위한 특강에는 「복음으로 해결하는 부모교육」이라는 주제로 정소영 전도사(영아부 지도)가 강의하였다.

현재 장소가 협소하여 5부에배로 다섯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재적수 학생 730명과 학부모를 더하면 매주 약 천일이백명), 이번 계절학교는 유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에는 유년부실과 영아부실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3) 고등부 선교음악회

10월 22일 본당에서 제7회 선교음악회를 주교 고등부 면려회 주최로 열렸었다.

제1부 최봉호 목사(교육위원장)의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있은 후, 제2부 순서에서 합창·독창 및 바이올린과 플루트 독주 등이 있었다. 감독과 지휘에는 송관호 선생(반주: 율혜경 선생)이 담당하였다.

(4) 중등부 「시와 찬양의 밤」

10월 29일 본당에서 제10회 시

와 찬양의 밤을 주교 중등부 주최로 열렸었다.

제1부 이원길 목사(중등부 지

도)의 설교가 있은 후, 제2부 순서에서 합창·중창·피아노3중주·그리고 시와 간증이 있었다. 감독과 지휘에는 강동호 선생(반주: 이성자 선생)이 담당하였다.

◎당회장 목사님

①한국 국제기드온협회가 제주도에서 주최한 국제모임의 「은혜의 시간」을 지난 10월7·8일 이틀간 인도하였다. ②10월 24~27일까지 인천송의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였다.

◎충현기도원 집회

10월 17~21일 충현기도원에서 부흥 사경회가 조준상 목사를 모시고 열렸었다.

각종통계 1983. 10. 2(매월 첫주 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배	주일 낮	I 부	192	340	532	총 세대수			4,613
		II 부	487	1,034	1,521				
		III 부	321	666	987				
		IV 부	189	347	536				
		V 부	132	359	491				
	주 일 저 녀		209	428	637				
삼 일 저 녀		179	382	561					
주일학교	어린이 새신자부		7	4	11	신 급 별 교 인 현 황	교 인 총 수	남	4,533
	영 아 부		213	188	401			여	6,370
	유 치 부		150	159	309			계	10,903
	유 년 부		161	192	353		세 레 입 교	남	2,461
	초 등 부		242	215	457			여	3,877
	중 등 부		186	166	352			계	6,338
	고 등 부		130	147	277		유 아 세 레	남	592
	대 학 부		50	74	124			여	492
	청 년 부		43	68	111			계	1,084
	장 새 부		39	104	143		학 습 교 인	남	299
	세 레 부		32	64	96			여	429
	장 년 부		42	278	320			계	728
	소 망 부		48	158	206		원 입 교 인	남	1,681
	직 장청 소년부		26	102	128			여	1,568
선 교 부		6	42	48	계	2,749			
새 가 정 부		23	29	52					
합 계		3,107	5,546	8,653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4,25)

10월의 교우동정

● 1지구

행당 1구역	권정남	단대 구역	박창남
천호 2구역	정순민	금곡 구역	차동진
단대 구역	강옥희	망우 4구역	김종인
행당 1구역	김미라	행당 1구역	유소영
면목 4구역	박영준	목동 1구역	박재임
구의 5구역	원용규	임사 A 구역	박정환

● 2지구

월계 구역	우종현	신당6-2구역	문복희
창동 2구역	강상숙	신당1-2구역	박영진
하월곡2구역	김광남	미아2-1구역	박홍신
쌍림 2구역	김춘자		

● 3지구

예관 구역	박준영	역촌 구역	정현숙
종로 구역	이희남	송인 2 구역	김영래
북면 구역	해정희	낙원 구역	김성희
장충 9 구역	김정숙		

● 4지구

망원 1 구역	윤수정	신길 구역	장남희
신길 구역	김희수	공화 구역	엄선애
서교 1 구역	권세숙	인현2-3구역	박경희
여의도2구역	장수혜	오장 2 구역	김조간

● 5지구

이태원2구역	이영진	봉천 7 구역	장 영
신림2-9구역	노홍균	봉천 5 구역	장영순

결 혼

- 이울식군(부천구역)과 이영미양(유치부교사 정두악씨 딸) 10월 3일
- 김병수군(제일성가대원 곡선부편사 아들)과 최정화양 10월 4일
- 백남진군(청량리구역)과 신기옥양(유년부교사 담심리구역) 10월 8일
- 김영희양(김두하씨 딸) 10월 12일
- 윤기호군(역삼구역)과 박미서양(미아리구역) 10월 15일
- 심현영군과 한미영양(영아부교사 정순정집사 딸) 10월 15일
- 이평태군(부천구역)과 황계화양(제일성가대원 김효정권사 딸) 10월 15일
- 이순재양(유만내권사 삼녀) 10월 18일
- 이종현군과 임현진양(임광용 유급열집사 딸) 10월 20일
- 전근영군(김종열집사 아들)과 손정남양 10월 22일
- 박지환군(고동부교사 신림구역)과 오경숙양(석수구역) 10월 22일
- 허민선군(중동부교사 구산구역)과 임봉영양 10월 22일

별 세

- 안재숙씨(광희1-2구역) 9월 25일
- 오순례씨(미아4 구역 열미숙집사 시모) 10월 7일

총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버스편

· 매일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토요일제외)

· 매주 수요일배후 9시에 교회 앞에서 출발

· 차량운행코스 : 총현교회→신사동국민은행앞→영동시장 (대한투신)→삼일자동차(새성전앞)→잠실네거리→송파→성남모란시장(시외버스정류장)→기도원.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여주·이천방면 완행버스를 (20분 간격)타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 하차〉하여 광주행 3번을 타고 〈광주에서 하차〉광주에서 이천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30-1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13472-2-4425

새로 나온 교우는

*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 「학습」을 받으신 사람은 세례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집회시간은 12시이며 장소는 새신자부실에서, 세례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11월의 행사

◇재정위원회

6일/재정위원회 월례회

◇건축위원회

27일/건축위원회 월례회

◇교육위원회

7~9일/교사단기훈련

27일/교육위원회 월례회

◇자산관리위원회

20일/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심방위원회

6일/정기제작회

13일/권사회 임원회

20일/권사회 월례회

27일/구역권찰회의

◇교회

3일/장로장립식

4일/정기당회

11일/전체철야기도회

27일/권사임명·제직임명

◇전도위원회

1일/직장전도회 조찬기도회
및 월례회

11일/여전도회 월례회

13일/남전도회 월례회

직장전도회 월례회

20일/전도위원회 월례회

◇출판국

6일/월간 충현 11월호 발행

20일/출판국 월례회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윤명식

편집위원/

이성근 이세열

윤영탁 안석렬

김영구 조현명

김차생 우기전

이훈정은표

오태용이형수

편집후기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시에 회중을 향해 물으셨다.

“천국이 좋은 줄 아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라고.

그러자 모든 회중이 손을 들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금

“지금 당장에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그런데, 반도 안되는 성도만이 손을 들었다.

왜? 나머지 교인은 손을 안들었을까?

죽음의 공포와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슬픔도 많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천국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일까?

믿는 사람이 장례식에는 찬송을 부른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에, 울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세상에 전운(戰雲)이 감돌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정리해야 할 것이 많아짐을 느낀다. 더욱 홀가분해야 할 터인데.

죽음에 대한 엄숙한 시간 - 이것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그리고 간절한 기원이며 회열의 시간으로 점차 변하여 간다.

특히 감사절에 대한 특집을 다루면서 현재의 삶이 천국에 대한 회열과 감사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월간 충현」의 한쪽 한쪽을 준비하였다. †

1983년 11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 11월호

제11권 제10호

통권115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3년 11월 4일 인쇄

1983년 11월 6일 발행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윤명식
주 간/김영구
편집부장/문영화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1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36

전화/274-2171·2172



영아부 계절학교(10. 18~19)



정은표 강도사



정관호 강도사



윤태곤 강도사



김성주 강도사



김장근 강도사



고등부 선교음악회(10. 22)



사진설명 (위) 세례식 (아래) 성찬식

